소망의 언덕

"세 가지를 확인하고 시작합시다"

한해가 저물어 간다며 서운해 하더니 새해가 왔다고 기뻐 춤추는 동물은 오직 사람뿐이니 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가! 드디어 2020년 새해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단순히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맞이한 새해가 아니라 새로운 다짐과 결심으로 시작된 새해가 되려면 적어도 세 가지는 확인하고 시작하자.

먼저, 회개 했는가? 미국의 작가 마크 트웨인(Mark Twain)은 "회개가 신발을 신는 동안 죄는 세계를 한 바퀴 돈다."고 했다. 우리가 회개를 미루는 사이 죄는 내 인생을 지배하고 만다는 것이다. 다른 사람 앞에서 당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말하면 인간관계에 큰일이 일어난다. 그러나 성경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가감 없이 말한다. 우리의 죄 된 모습을 드러내는 적나라한 성경은 욥기에 있다.

"죄 짓기를 물 마심 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욥기15:16) "악을 달겨 여겨 혀 밑에 감추고 아껴서 버리지 아니하고 입천장에 물고 있다."(욥20:12~13). 껌이 귀했던 어린 시절, 어쩌다 껌 하나를 얻어 씹다가 단물이 다 빠져도 버리지 못하고 벽에 붙여 놓으면 형이 떼어서 씹고 또 내가 떼어서 씹었던 기억이 선명한데 우리가 그렇게 죄를 아까워서 버리지 못하는 죄 된 존재이기에 확실히 그리고 분명히 회개하고 새해를 맞이해야 한다.

두 번째는 용서했는가? 지난 년말에 들려온 반가운 소식은 서울 사랑의 교회가 7년의 다툼과 분열과 소송과 분쟁을 끝내고 화해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속 사정이야 어찌되든 사랑의 공동체에서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 자매들이 원수처럼 싸우다가 화목을 하게 되었다니 이 얼마나 가뭄에 단비 같은 소식인가.

살면서 사람을 용서하기 가장 힘든 이유 중의 하나는 저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나는 회복을 위해 무언가를 하고 있는데 저 사람은 여전히 용서받지 못할 행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생각하기에 우리는 용서가 어렵다. 그러나 용서는 상대방이 변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용서받았다는 분명한 은혜의 깨달음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그래서 용서는 자기 자신에게 주는 선물이다.

시인 정호승의 시 중에 "내 가슴에" 라는 시를 소개하면

내 가슴에 손가락질하고 가는 사람이 있었다. / 내 가슴에 못질하고 가는 사람이 있었다.

내 가슴에 비를 뿌리고 가는 사람이 있었다. / 한평생 그들을 미워하며 사는 일이 괴로웠으나

이제는 내 가슴에 똥을 누고 가는 저 새들이 / 그 얼마나 아름다우냐.

세 번째는 확실히 믿는가? 의심하는 사람의 대명사가 된 예수님의 제자 도마가 예수님의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 자국을 확인하고 하는 고백은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요20:28) 이런 분명한 신앙고백이 있어야 형통이 축복의 통로가 되고 고난이 간증이 되는 향기로운 열매가 맺을 수 있다.

스위스의 신학자였던 칼 바르트가 미국을 방문하던 날, 수많은 기자들이 그를 인터뷰하기 위해서 기다렸다. 그리고 칼 바르트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이 평생 동안 신학을 연구하고 세계적인 신학자가 되면서 당신이 발견한 가장 위대한 당신의 신학은 무엇인지요?"

이 때 바르트는 뜻밖의 너무나도 단순한 말을 해서 기자들을 놀라게 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그것이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이 내가 발견한 가장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리고는 찬송가 563장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를 나직이 읊조렸습니다.

새해에도 이 세 가지를 순간마다 확인하며 멋진 한해를 만들어보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요한복음 3:16)

최 정 원 목사
광주소망교회 담임

외부필자의 원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목회산책

운 행

임 석 인 목사
새벽이슬교회 담임

시계 하면 스위스입니다. 지금은 가술이 좋아져서 값 싼 시계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고급 시계, 명품 시계는 스위스에서 만들어 집니다.

확대경과 족집게를 사용하여 일하는 스위스 시계제작자 들은 기계식 시계의 미세부품들을 세밀하게 제조하고 조립합니다. 시계의 모든 복잡한 부품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필수 부품은 주 태엽 입니다. 주 태엽은 모든 톱니바퀴를 움직여 시계가 시간을 정확하게 맞출 수 있게 해주는 부품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아무리 뛰어난 설계를 했어도 시계는 작동되지 않습니다.

창세기의 맨 첫 기사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음을 성경의 맨 첫머리에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명품시계만큼이나, 아니 그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복잡한 우주의 온갖 미세한 부분을 예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오늘날 과학의 눈부신 발달로 우주의 비밀이 하나씩 밝혀질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에 그저 경의를 표할 따름입니다. 광활한 태양계로부터 지구상의 미신세계까지 모든 것을 주님이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 지식은 아주 미약합니다. 앞으로 밝혀질 지식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저 놀랄 따름이지요. 이 우주에는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귀에는 들리지 않아도 각종 정보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성경에서는 오늘도 창조하신 그 만물들을 하나님께서 운행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즉 창조해 놓으신 모든 만물을 그냥 방치해 놓지 않으시고 운행, 즉 움직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창조보다도 더 놀라운 능력인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창조물이 살아 움직이고 번성케 하는데 필수적인 분이십니다. 오늘도 우주 만물들이 정확한 법칙에 따라 운행할 수 있도록 붙드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 이십니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히브리서 1:3). 주님의 모든 창조물이 놀랍도록 복잡한 가운데서도 서로 함께 일할 수 있는 것은 오늘도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태양계의 모든 행성이 규칙적으로 태양을 향해 도는 것이랄지, 또 태양은 태양계의 행성들을 거느리고 어딘가로 움직이는 것이랄지, 지구는 항상 서쪽에서 동쪽으로 매일 한 바퀴씩 자전하는 것이랄지, 달은 1달이 못되는 기간에 지구를 한 바퀴씩 돌아서 바다와 지구에 큰 영향을 주는 것 등이 모두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물체는 힘을 가해주지 않으면 멈추어 버립니다. 주님은 이 모든 것을 오늘도 질서 정연하게 움직이고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매일 해가 뜨고, 밤이 되고, 따뜻한 태양이 우리를 살게 비춰 주는 것이 일상이 되어서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지만 이 모든 것이 주님의 간섭과 역사하심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만약 주님의 역사하심이 사라져서 우리가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지금과 같은 생활을 누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태양이 빛을 주지 않으면 영하 수백도의 환경에서 조금도 생명을 지탱할 수가 없습니다. 또 빛이 없다면 불을 밝히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돈을 들여 시설을 해야 되겠습니까? 나무들은 하나도 자랄 수 없고, 물도 흐르지 않을 것입니다. 즉 지금과 같은 생물이 살 수 있는 환경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찬송가 중에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를 참 좋아합니다. 때때로 자연 가운데에서 경이로운 하나님의 작품을 발견할 때면 우리에게 좋은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힘쓰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연을 통한 미적 감각은 우리에게 놀라움을 주기에 조금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우주 만물을 운행하심은 앞으로도 인류의 역사가 지속되는 한 계속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지으신 모든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또한 그 지으신 모든 것을 지금도 돌보시고 운행해주심에 또한 감사해야 합니다. 즉 천지와 우리를 창조하신 것에 대해서와, 오늘날도 살아갈 수 있도록 운행하심에도 감사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외부필자의 원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직장인콜링 100일 묵상집 _ 2.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오늘, 일터에서 하나님을 만난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

세상에서 가장 분명하게 눈에 띄는 움직임은 아마도 돈과 관련되어 있을 것이다. 우리의 일터에서도 매출이 중요하고 수익의 극대화가 최고의 평가기준이 되었다. 이렇게 돈의 가치와 힘이 큰 것을 예수님도 아시고, 하나님과 돈을 동시에 섬기지 말라는 말씀을 하셨다(마6:24). 세상의 중심은 돈이 아니다. 예수님이 돈과 비교의 대상으로 삼으신 하나님이 바로 세상의 중심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모든 삶의 필요, 즉 돈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라고 하셨다. 이것은 어떤 삶일까?

사랑에 빠진 사람을 생각해보라. 사랑에 빠지면 사랑하는 사람이 하자는 대로 한다. 옆에서 보면 바보 같은데, 그렇게 하면서도 즐거워한다. 그래서 사랑에 눈이 멀었다고 표현한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바로 이런 것을 의미한다. 일을 할 때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야 한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 무엇인지 먼저 생각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해도 하나님의 기분에 맞지 않는 일이라면 포기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 항상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산다고 생각하며 행동해야 한다. 상황이 우리를 엉뚱한 데로 몰아갈 때가 있어도 상황이나 사람보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서 결단하고 행동하는 것이다.

'메시지' 성경은 마태복음 6장 33절을 이렇게 표현한다. "하나님과 그분이 일하시는 방식을 모르는 사람은 그런 일로 안달하지만, 너희는 하나님이 실체가 되시고, 하나님이 주도하시며,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삶에 흠뻑 젖어 살아라. 뭔가 놓칠까봐 걱정하지 마라. 너희 매일의 삶에 필요한 것은 모두 채워주실 것이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까 고민하며 돈에 집착하지 말라는 말씀이다. 하나님이 실체가 되고 주도하시는 삶에 흠뻑 젖어 살도록 노력해야 하겠다.

〉〉〉 일하는 사람의 기도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더라도 하나님 중심으로 늘 살아갈 수 있게 저를 인도해주소서. 모든 일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본지는 위 글을 저자와의 협의를 거쳐 연재한다.(원용일 목사 지음/도서출판 브니엘)

미션21 후원교회

대한예수교장로회
광주창대교회
표어 : 작은 지로 천을 이루는 교회 (사60:22)

담임 한상영 목사
• 주일오전 1부 9:00 / 2부 11:00 / 3부(영) 1:00
• 주일오후 3:00
• 수요발여배 7:00
• 금요기도회 9:00
62360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천변길 607(월곡동)
대표전화 : 954-1217 FAX952-5683

한국기독교장로회
풍암계림교회
표어 : 세계비전을 이루는 교회 (마 28:19-20)

담임 윤세관 목사
• 주일오전 11:00
• 주일오후 2:00
• 수요발예배 7:00
• 새벽기도회 5:00
62049 광주광역시 서구 풍금로38번길 4-17 (풍암동)
대표전화: 655-0675

대한예수교장로회
광주벧엘교회
표어 : 주님의 기쁨이 되는 생명의 공동체

담임 리종빈 목사
• 주일오전 1부 7:30 / 2부 9:30 / 3부 11:30 / 4부 오후 1:00
• 주일오후 3:00
• 수요발예배 7:00
• 금요기도회 7:30
61610 광주광역시 남구 군분로170번길 8(월산동)
대표전화:367-1004 FAX:361-1004

한국기독교장로회
광 산 교 회

담임 윤홍성 목사
• 주일새벽 5:00
• 주일오전 1부 9:00 / 2부 11:10
• 수요예배 오전 10:00 / 밤 7:30
• 금요발기도회 7:30
• 수완선교센터 주일오전 1부 10:10 / 주일오후 2부 13:30
62365 광주 광산구 우산로 107번길 54 대표전화: 062)941-8004
수완선교센터: 광주광역시 광산구 수완동1147

대한예수교장로회
신원벧엘교회
표어 :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 (엡5:26-27)

담임 김양수 목사
• 주일오전 11:00
• 주일오후 1:30
• 목요찬양예배 7:00 (실로암 찬양예배와 통예)
• 새벽기도회 5:00
• 교회학교예배 오전 9:30
• 청년부(새벽이슬옥샘) 오후 1:30
62002 광주광역시 서구 운천로113번길 7-1 (쌍촌동)
대표전화: 062)226-1009

대한예수교장로회
월 광 교 회
표어 : 말씀과 기도로 새로워지는 삶과 공동체 (엡 5:26-27)

담임 김요한 목사
• 주일오전 1부 7:30 / 2부 9:30 / 3부 11:30 / 4부 1:30 (청년)
• 주일 발 7:30
• 수요발예배 7:30
• 새벽기도회 5:00
• 금요기도회 9:00
62025 광주광역시 서구 염화로 31번길 7(화정동 417)
대표전화: 062)375-0400 FAX: 062)375-8187

대한예수교장로회
광 야 교 회
표어 : 내 교회를 세우리니(마16:18)

담임 최옥란 목사
• 주일오전 11:00(분당)
• 주일발 7:30(분당)
• 수요발예배 7:30(분당)
• 금요기도회 9:00(광아홀)
• 새벽기도회 5:00(광아홀)
62040 광주 서구 월드컵4강로 28번길 45-7(화정동)
대표전화 : 062)369-8851 FAX: 062)352-0191

대한예수교장로회
첨단창조교회
표어 :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는 교회 (요 17:3)

담임 김영철 목사
• 주일오전 1부 7:30 / 2부 11:00
• 주일오후 5:00
• 수요발예배 7:00
• 금요기도회 8:00
• 새벽기도회 5:00
• 밤기도회 매일 8:00
62255 광주광역시 광산구 첨단풍암로 181번길 88-16
대표전화 : 062)971-8004

대한예수교장로회
빛과소금교회
표어 : Witness, 증인

담임 정종돈 목사
• 주일오전 1부 9:00 / 2부 11:00 / 3부 1:30
• 금요기도회 8:50
• 새벽기도회 5:20
61073 광주광역시 북구 임방울대로 1008-3
대표전화: 062)951-1191, 1291 FAX: 062)955-4821

대한예수교장로회
광주유일교회
표어 : 노대에서 땅끝까지 (마26:19-20, 행1:8)

담임 남태풍 목사
• 주일오전 1부 9:00 / 2부 11:00
• 주일오후 2:00
• 수요발예배 7:00
• 새벽기도회 5:00
61747 광주광역시 남구 효우로 129번길 7
대표전화: 062)653-6161

대한예수교장로회
하 남 교 회
표어 :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우리 하남 교회(느2:7, 엡5:26-27)

담임 임준태목사
• 주일오전 1부 7:30 / 2부 9:30 / 3부 11:10 / 4부 12:50
• 주일오후 2:30
• 수요발예배 7:00
62333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청공원로 76-12
대표전화: 062)951-9999 FAX: 062)952-5304

한국기독교장로회
광주계림교회
표어 :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배우고 믿하며 전하는 교회 (살전 2:20, 빌4:9, 행1:8)

담임 최요한 목사
• 주일오전 1부 7:00 / 2부 11:00
• 주일오후 2:00
• 수요발예배 7:00
• 금요기도회 8:00
• 새벽기도회 5:00
61414 광주광역시 동구 계림로 34-4
대표전화: 062)224-8861 · 227-8863

대한예수교장로회
광주새순교회
표어 : 기본에 집중하라 (Focus on the Basic) 고전3:11
• 주일오전 1부 7:55 / 2부 9:20 / 3부 11:20
• 주일저녁 8:00
• 수요밤예배 7:30
• 새벽예배(월~토) 5:00
• 금요기도회 8:30
61029 광주광역시 북구 모룡대길 34(월곡동 46-25)
대표전화 : 062)572-9595 / FAX: 062)572-9596

대한예수교장로회
문흥제일교회
표어 : 건강한교회, 행복한교회 치유하는교회

담임 맹연환 목사
• 새벽기도회 5:00
• 주일오전 1부 8:00 / 2부 11:00
• 주일밤 7:30
• 수요발예배 7:30
61127 광주광역시 북구 부남길15번길46(문흥동)
대표전화 : 062)266-8025 팩스: 062)266-8026

기독교대한성결교회
광주한빛교회
표어 : 성령님과 동행하는 해

담임 문희성 목사
• 주일오전 1부 9:00 / 2부 11:00
• 주일오후 2:00
• 수요발예배 7:30
• 새벽기도회 5:00
61746 광주광역시 남구 노대실로 41번길 31(노대동)
대표전화: 062)676-8831

대한예수교장로회
푸 른 솔 교 회
표어 : 평강이 넘치는 교회 (요20:21)

담임 허창범 목사
• 주일오전 1부 8:00 / 2부 11:00
• 주일오후 1:30
• 수요발예배 7:30
• 새벽기도회 5:00
62308 광주광역시 광산구 수완로11번안길 47
대표전화: 062)953-4620 · 070-4150-4620

대한예수교장로회
새 희 망 교 회
표어 : 삶에 새희망을 주는 교회

담임 허태호목사
• 주일오전 1부 7:30 / 2부 9:00 / 3부 11:00
• 주일오후청년 1:50
• 수요밤예배 7:30
• 새벽기도회 5:30
62253 광주광역시 광산구 첨단과기로 79-5 번지
대표전화: 062)971-9190 FAX: 062)972-9190

대한예수교장로회
광주남문교회
표어 : 새 성전을 건축하라 (학 1:8)

담임 양원용 목사
• 주일오전 1부 7:30 / 2부 11:00
• 주일오후 친양 2:00
• 수요밤예배 7:30
• 새벽기도회 5:00
• 금요기도회 8:30
61683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중앙로47번길 15(봉선동)
대표전화 : 062)676-1004 FAX : 062)676-4603